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아모텍 (052710)

AI 고도화가 이끄는 MLCC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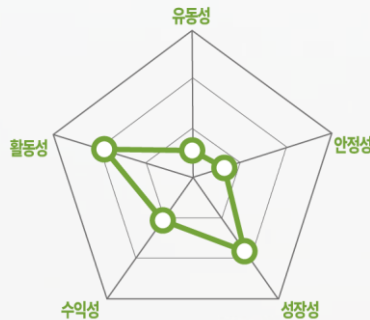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2월 Marvell향 AI용 MLCC 승인 완료 및 Coherent향 공급 개시. 고속 광통신용 BBC를 중심으로 글로벌 업체 약 15개사 대상 신규 고객 확보 추진 중. 2027년 추가 고객 승인 및 양산 물량 확대에 따른 MLCC 매출 성장 본격화 여부 확인 필요
- 전장용 BLDC 모터에서 로봇 액추에이터로 사업영역 확대 추진. 2026년 모터 매출 약 900억원 예상, 자동차용 모터 설계·제어 기술과 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로봇 시장 진입 추진. 아모에코로보시스템즈 등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한 로봇 사업 확대 가능성도 존재. 로봇용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실제 공급 프로젝트 구체화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매출액 2,630억원(+3.6% YoY), 영업이익 83억원(+51.5%), OPM 3.2% 전망. 상반기 안테나 부진으로 수익성 회복이 지연됐으나, 하반기 AI용 MLCC 매출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이익 성장 예상. 2027년 MLCC 가동률 상승 및 수익성 개선이 주요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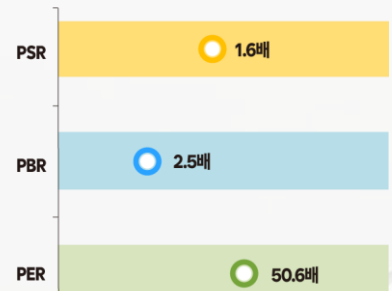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2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AI 광통신용 MLCC 공급 확대 본격화

2026년 Marvell향 AI용 MLCC 승인과 Coherent향 공급을 시작으로 AI 데이터센터 시장 진입 가시화. 글로벌 업체 약 15개사를 대상으로 신규 고객 확보를 추진 중이며, 고속 광통신용 BBC 수요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 2027년부터 고객 다변화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MLCC 가동률 상승 및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 전망.

전장용 모터에서 로봇 액추에이터로 사업영역 확장

기존 전장용 BLDC 모터의 설계·제어 기술과 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로봇 시장 진입 추진. 아모에 코로보시스템즈 등 계열사와의 협업 가능성도 존재하며, 회사는 빠르면 2027년 로봇 사업화를 기대. 다만 후발주자인 만큼 주요 로봇 OEM의 고객사 선정 및 양산 프로젝트 확보가 중장기 성장의 핵심 변수.

2026년 영업이익 51.5% 증가, 수익성 회복 전망

2026년 연결 매출액 2,630억원(+3.6% YoY), 영업이익 83억원(+51.5%), 영업이익률 3.2%(+1.0%p) 전망. 상반기 안테나 사업 부진으로 수익성 회복이 지연됐으나, 하반기 AI용 MLCC 매출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이익 성장 예상. 2025년 MLCC 수출 정상화에 이어 2026년은 신규 성장동력의 실적 기여가 시작되는 전환점으로 판단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2,157	1,868	2,294	2,538	2,630
YoY(%)	8.6	-13.4	22.8	10.6	3.6
영업이익(억원)	-43	-260	-239	55	83
OP 마진(%)	-2.0	-13.9	-10.4	2.2	3.2
지배주주순이익(억원)	-92	-147	-198	79	55
EPS(원)	-522	-832	-1,122	449	305
YoY(%)	적지	적지	적지	흑전	-32.2
PER(배)	N/A	N/A	N/A	19.5	71.6
PSR(배)	1.2	0.7	0.3	0.6	1.5
EV/EBITDA(배)	18.0	N/A	N/A	10.2	17.7
PBR(배)	1.4	0.8	0.4	1.0	2.2
ROE(%)	-5.1	-8.6	-12.6	5.2	3.2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0/7)	21,800원
52주 최고가	29,083원
52주 최저가	7,744원
KOSDAQ (10/7)	898.43p
자본금	73억원
시가총액	4,072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9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65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02억원
외국인지분율	4.22%
주요주주	김병규 외 4인 27.93%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94.6	62.4	94.9
상대주가	78.1	87.4	85.3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기업개요 및 연혁

칩 바리스터로 출발해

안테나·모터·MLCC로 사업 확장

아모텍은 세라믹과 자성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기기용 수동부품, 안테나, BLDC 모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종합 소재 부품 기업이다. 창업자인 김병규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에서 금속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소재 전문가로, 1994년 10월 비정질(아몰퍼스) 코어 등 신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주)아모스를 설립했다. 1999년 12월에는 모터 사업을 영위하던 (주)아모트론과 바리스터 사업을 영위하던 (주)아맥스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아모텍으로 변경했으며, 200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현재 인천 남동공단 본사에서 세라믹 칩 부품과 MLCC를, 평택 포승 사업장에서 BLDC 모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안테나는 베트남(아모비나)과 중국(산둥아모텍전자) 생산법인을 중심으로 생산한다.

아모텍은 일본 기업들이 주도했던 초소형 칩 바리스터를 처음으로 국산화해 해외 주요 휴대폰 업체에 공급했고, 글로벌 점유율을 30% 이상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NFC 안테나 공급이 본격화됐고, NFC·MST·무선충전(WPC)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Combo 안테나와 메탈 케이스 스마트폰용 감전보호소자를 삼성전자에 대규모로 공급하며 두 번째 성장기를 맞았다. 그 결과 매출액은 2011년 979억원에서 2015년 3,140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주요 고객사의 출하량이 정체되면서 모바일용 매출이 감소했다. 이에 매출액은 2017년 3,154억원에서 2021년 1,986억원으로 줄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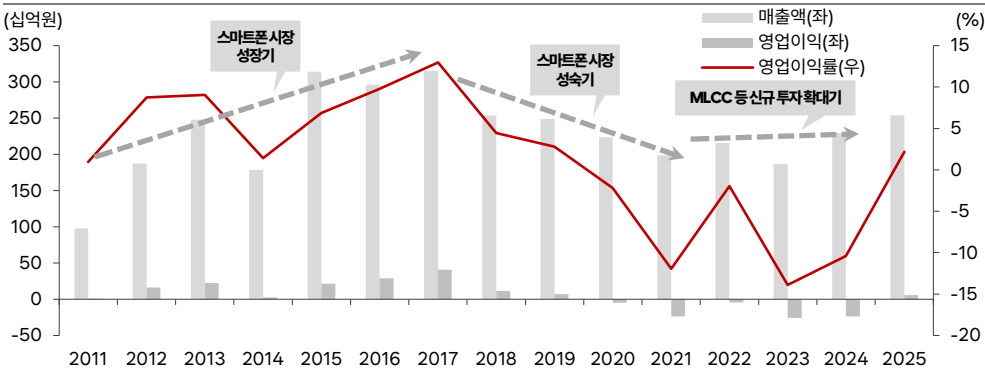
2025년에는 MLCC 수율이 안정화되고 전장용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반등했다. 2025년 연결 매출액은 2,538억원(YoY +10.6%), 영업이익은 55억원(YoY 흑자전환)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연간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아모텍 주요 연혁

1994~2000	2001~2010	2011~2019	2020~2026
1994.10 (주)아모스 설립	2003.05 세계일류상품 선정(Chip Varistor)	2011.05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2020.07 Best Quality Supplier Award 수상(Molex)
1995.08 (주)아모트론 설립	2003.08 코스닥시장 상장	2013.12 1억불 수출탑 수상	2022 BYD 전기차 BMS용 고용량 MLCC 공급
1997.05 신소재연구소 설립	2005.09 산둥아모텍 사업장 준공	2015.12 세계일류상품 재선정	2023.03 무상증자(1주당 0.5주 배정)
1997.07 비정질 코어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선정	2006.05 청도아모텍(유) 설립	(Chip Varistor)	2025.01 BYD ADAS용 고용량 MLCC 공급 개시
1998.07 모터연구소 설립	2007.03 ISO/TS 16949 품질인증 획득	2016.12 2억불 수출탑 수상	2026.02 Marvell용 AI용 MLCC 승인
1998.12 (주)아맥스 설립	2008.11 오천만불 수출탑 수상	2018 MLCC 신사업 진출	2026.2Q Coherent용 AI용 MLCC 공급 개시
1999.12 3사 합병 및 (주)아모텍으로 상호 변경	2009.02 김병규 대표이사 코스닥협회장 취임	2019.09 Outstanding Quality Award 수상(FCA)	2026.05 유무상증자 결정
2000.05 아몰퍼스 코어 밀레니엄상품 선정	2010.05 KOTRA 보증브랜드 인증	2019.10 자동차부품산업대상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상 수상	(유상 237만주, 무상 1주당 0.1주)

자료: 아모텍, 다트전자공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아모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구성 및 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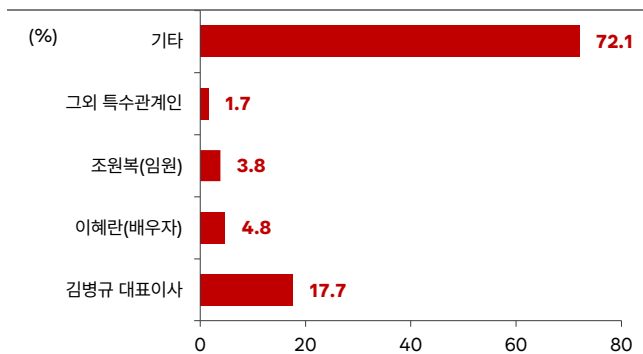
김병규 대표 중심의 지배구조

아모텍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김병규 대표이다. 2026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이후 현재 발행주식수는 1,868만주이며, 김병규 대표 및 특수관계인 4인의 보유주식은 521.8만주, 지분율은 27.93%다. 최대주주 측에는 김병규 대표를 비롯해 배우자 이혜란, 조원복·오남진 임원, 계열사 아모그린텍이 포함된다. 김병규 대표 개인 지분율은 17.68%다.

회사는 8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237만주를 발행했으며, 이후 기존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169.8만주를 무상증자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수는 기존 1,461만주에서 1,868만주로 증가했다. 특히 아모그린텍은 신주인 수권 일부를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특수관계인에 포함됐다. 아모텍도 아모그린텍 지분 3.88%를 보유하고 있어 양사 간 상호 지분 보유 구조가 형성돼 있다. 아모그린텍의 유상증자 참여는 최대주주 측 우호지분 확보와 지배구조 안정 목적의 성격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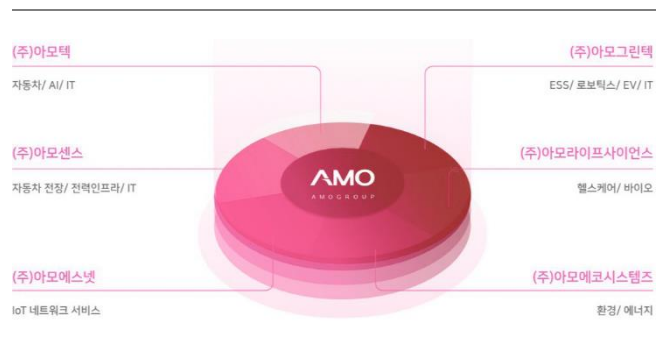
김병규 대표가 이끄는 아모그룹 내 상장사는 아모그린텍과 아모센스다. 아모그린텍은 첨단소재와 ESS 사업을, 아모센스는 무선충전·안테나 등 전자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2026년 6월 말 기준 아모텍의 연결 종속회사는 산동아모텍전자, 아모텍상해무역, 아모비나 해외법인 3개사이며 모두 아모텍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산동아모텍전자와 아모비나는 제조법인, 아모텍상해무역은 판매법인으로, 2분기 말 자산총액은 각각 366억원, 22억원, 507억원이다.

8월 유 무상증자를 반영한 아모텍의 주요 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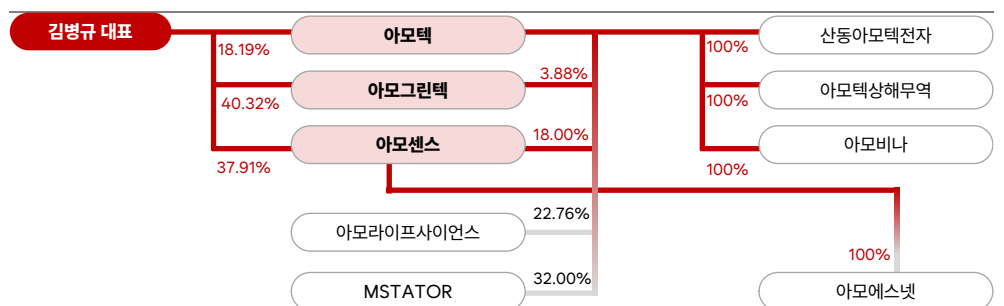
자료: 아모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MO 그룹 계열사



자료: 아모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MO 그룹 지배구조도



주: 붉은 색상은 상장사. 2분기말 기준

자료: 아모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별 설명 및 주요 보유 기술

AI 전장 중심 사업구조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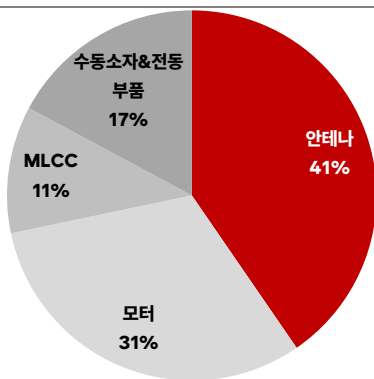
아모텍은 스마트폰용 안테나와 세라믹 수동부품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이후 전장용 모터와 MLCC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왔다. 2025년 매출 비중은 안테나 41%, 모터 31%, MLCC 11%, 기타 17%로 구성돼 있어 여전히 안테나와 모터가 외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기존 스마트폰 중심 사업의 성장성이 둔화된 가운데, 현재는 전장 및 AI 데이터센터용 차량 적용처 확대가 가능한 MLCC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1) MLCC(11%): 전장·AI 중심 핵심 성장축

아모텍의 세라믹칩 사업은 ESDバリスタ와 감전보호소자 등 세라믹 기반 수동부품에서 출발했으며, 현재는 MLCC가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초소형 칩バリスタ(Chip Varistor)를 국산화하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장했다. 칩バリスタ는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유입될 때 이를 흡수해 회로를 보호하는 부품이다. 이후 축적한 세라믹 소재·적층·소성 기술을 바탕으로 2018년 MLCC 사업에 진출했으며, 초기 통신용 제품에서 전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고부가 시장으로 적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MLCC는 전원을 안정화하고 회로 내 노이즈를 제거하는 핵심 수동부품이다. 동사는 고용량 MLCC를 비롯해 온도·전압 변화에도 특성이 안정적인 COG, 고속 신호 전송에 적합한 BBC(Broadband Capacitor) 등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전장에서는 BMS·ADAS·충전 인프라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에서는 고속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신호 노이즈를 줄이는 BBC와 전력단용 COG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존 세라믹 부품에서 축적한 소재·공정 기술과 전장용 제품 양산을 통해 확보한 신뢰성 관리 역량이 주요 기술 경쟁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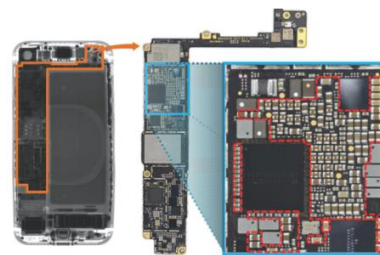
2025 사업부별 매출 비중



자료: 아모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MLCC

MLCC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전자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전자부품



스마트폰 800 ~ 1,0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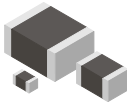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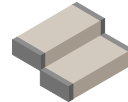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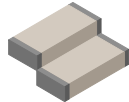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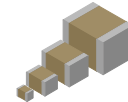
TV 2,000여 개

PC 1,200여 개

자동차 6,000 ~ 13,000개

자료: 삼성전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MLCC 사업부 확장 중

적용영역	전장용 MLCC		AI용 MLCC		
제품	 고용량 MLCC	 COG 고압용 MLCC	 AI MLCC (BBC)	 COG 고압용 MLCC	 초소형/고용량 MLCC
경쟁력	- 유전체 분말, 조성 등 소재특화 경쟁력 보유 - 고신뢰성 전원용 박막, 고적층 기술 특화 제품 대응 경쟁력 확보	- 미립유전체조성, 내부전극 특화 기술로 저발열, 고전압 공진캡 경쟁력 확보 - 대형 사이즈 양산 경쟁력 확보	- 초고용량 대응 내·외부전극 설계 및 제품 구현 독자 구조에 대한 특허 확보 110GHz 이상 고주파 측정 시스템 디지털트윈 모델링 대응	- 고적층용 Crack Free 시트 제어 기술 - 균일 전극 형성을 위한 초미립 공재 기술 - Open mode (Soft, Floating) 기술	- 유전체 분말, 조성 등 소재특화 경쟁력 보유 - 초박막, 초고적층 기술 및 고속 소결 기술로 초고용량 특성 구현
성과	- ADAS항 고용량 MLCC 시장 선점 - 고용량 High-end Full Line Up 진행	- 글로벌 전기차 업체 공급 및 추가 승인 기대 - 무선 충전, SiC 파워컨버전 등으로 제품 판매 확대 중	미국 시장 승인, AI data center 내부 통신, 서버간 통신 시장 타겟 공급	- 대만 H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효율 및 발열 특성 구현 완료 - 일본 T사 대비 우수한 특성 구현	- 국내 S사 동등 수준 용량 구현 - 반도체 보드단 전원 공급부 타겟 진출
시장	전기차 / 자율주행차 (Domain Controller, ADAS Power Controller)	xEV, PHEV (전기차) 무선 충전, SiC Power 모듈	AEC / AOC(광통신) / AI 인터커넥트 / 서버-서버 간 통신 / 6G / DAC / 밀리터리	AI 서버 시장 (AI 서버 전원단 전원공급용)	AI 서버 시장 (AI GPU 단 전원 공급)

자료: 아모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모터(31%): BLDC에서 로봇 액추에이터로

모터 사업부는 일반 DC Motor보다 내구성과 제어 성능이 높은 BLDC(Brushless DC) Motor에 특화돼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전장에서 발생한다. BLDC 모터는 Brush와 정류자의 기계적 접촉을 전자제어 방식으로 대체해 마모와 소음을 줄이고 수명과 효율을 높인 제품이다. 주요 적용처는 ADAS ECU, 헤드램프, 배터리 등의 Cooling Fan과 In-car Sensor 등으로, 차량 내 전장부품 증가와 함께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BLDC 모터에 제어기, 감속기 등을 결합한 액추에이터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Seat, Monitor Moving, Air Vent 등 차량 내 다양한 구동부품으로 적용처를 확대하는 단계다. 기존 전장용 BLDC Motor에서 확보한 내구성·신뢰성 및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용 액추에이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이 중장기 방향이다.

3) 안테나(41%): 모바일에서 전장으로

안테나 사업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NFC·Wireless Charging 기반 Combo Antenna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사업부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는 3-Combo, 보급형에는 2-Combo 및 NFC 단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기존 모바일용 사업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형성하는 가운데, 성장축은 스마트폰에서 전장용 안테나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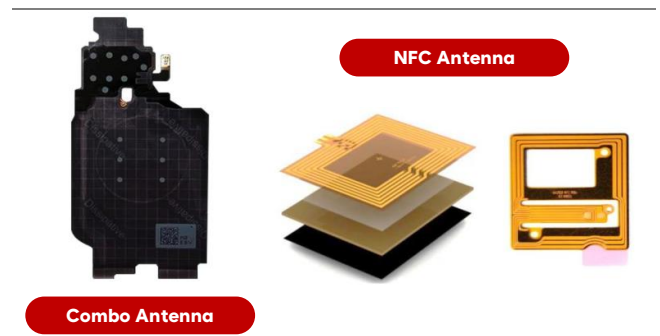
전장에서는 GPS/GNSS, UWB, TCU 및 Wireless BMS용 안테나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GNSS 안테나는 차량의 정밀 위치 측위에 사용되며, 자율주행 고도화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모텍은 세라믹 소재 및 RF 설계, 안테나 소형화·통합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 내 개별 안테나를 하나의 모듈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전장용 고부가 안테나의 매출 비중 확대가 핵심 성장 변수다.

모터 종류 비교 - BLDC 모터 장점은 고효율 · 고출력 · 정밀제어

구분	DC 모터(Brushed DC)	BLDC 모터
구동 방식	브러시·정류자에 의한 기계식 정류	인버터를 통한 전자식 정류
효율·수명	상대적으로 낮음, 브러시 마모 발생	고효율·장수명
제어 성능	단순 속도 제어에 적합	속도·위치·토크 정밀 제어 가능
장점	구조 단순, 저비용	고출력·밀도·저소음·높은 내구성
주요 적용	단순 자동차 전장, 소형 구동기기	고효율 전장,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자료: Maxon, Faulhaber, Texas Instrument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마트폰과 전장용 안테나



자료: 아모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MLCC, AI 인프라가 고부가 제품 수요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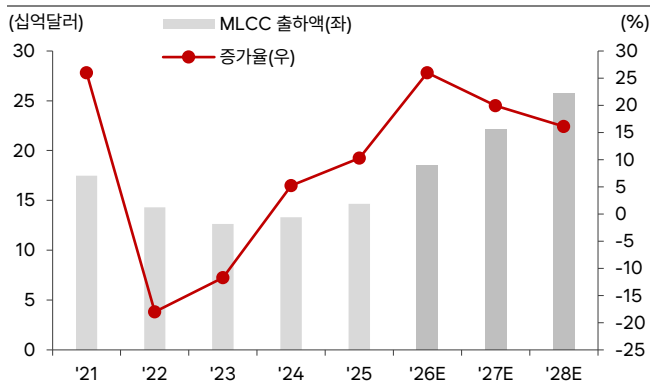
AI·광통신향 MLCC 수요 본격화

2026년 MLCC 시장은 전통 IT와 AI향 제품 간 수요 차별화가 뚜렷하다. 스마트폰·PC 등 소비자 제품 수요는 부진한 반면 AI 서버와 자체 ASIC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용량·고신뢰성 MLCC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TrendForce는 2026년 글로벌 AI 서버 출하량이 전년 대비 2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서버의 연산 성능 향상과 전력소모 증가는 MLCC 탑재량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NVIDIA GB200 보드에는 약 6,500개의 MLCC가 사용되는 반면, 차세대 Rubin 플랫폼에서는 약 12,0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사양 MLCC를 중심으로 수급도 타이트해지고 있다. 2026년 6월 말 Murata, 삼성전기, Taiyo Yuden의 BB ratio(수주액/출하액)는 각각 1.47배, 1.31배, 1.25배로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요 업체들이 생산능력을 AI용 고사양 MLCC에 집중하면서 일부 범용 제품으로도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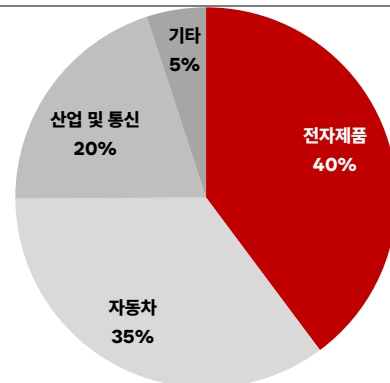
AI 데이터센터의 광통신 고속화 역시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GPU 간 데이터 전송량 증가에 따라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는 400G에서 800G, 향후 1.6T로 고도화되고 있다. 아모텍의 AI향 주력 제품인 BBC(Broadband Capacitor)는 AOC·AEC 등 고속 데이터 전송용 광·전기 케이블 모듈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BBC는 광대역 신호 전달 과정에서 직류 성분을 차단하고 신호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는 제품으로, 일반 범용 MLCC 대비 우수한 고주파 특성이 요구된다. 아모텍 역시 기존 전장 중심의 MLCC 적용처를 AI 데이터센터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광네트워크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파악된다.

글로벌 MLCC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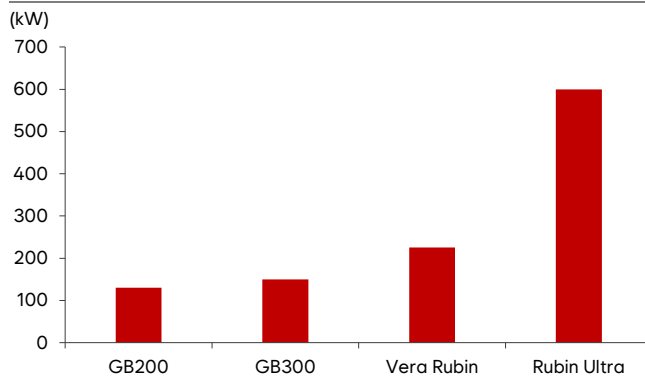
자료: Morgan Stanley(2026.8),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어플리케이션별 MLCC 수요처(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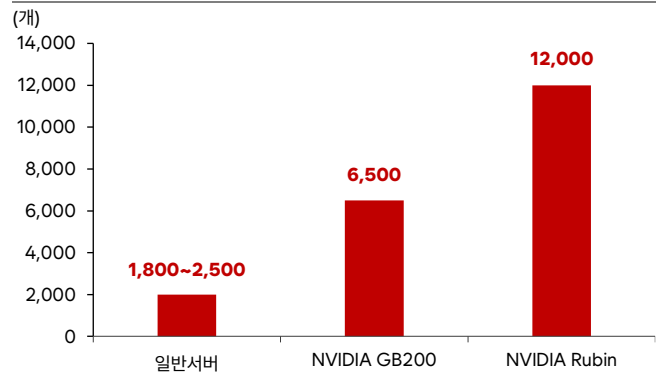
자료: PW Consulting,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 서버 고성능화에 따른 랙당 전력 소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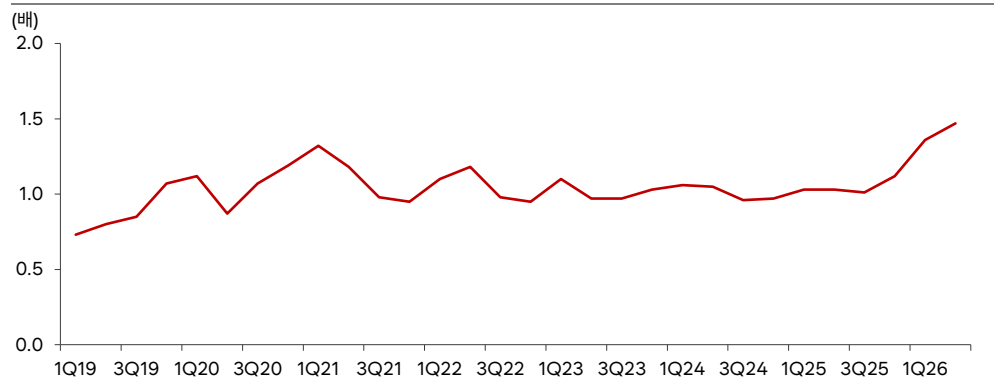
자료: NVIDIA, Trendforc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 서버 전환에 따른 보드당 MLCC 탑재량 증가



자료: Trendforce, Murat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 수요 확대에 따른 MLCC 수급 타이밍 – Murata의 BB ratio(Book-to-Bill ratio)



주: 1) 4Q25까지 Capacitors 기준, 1Q26 이후 회사가 제시한 MLCC 기준. Murata 회계연도는 4월 시작

2) BB ratio는 수주액/출하액으로, 1 초과 시 수요가 공급을 상회함을 의미, 자료: Murat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모터 성능에서 양산 경쟁력까지 경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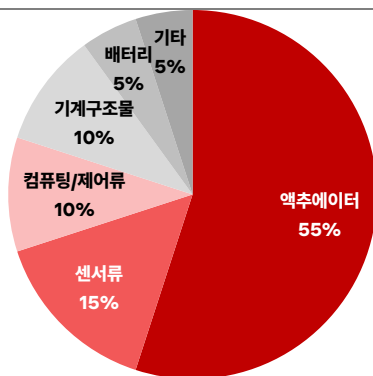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사 선정 심사 진행 중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 구동부인 액추에이터는 전체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회전형 액추에이터 비중은 약 25% 수준으로 추정된다. 회전관절에는 모터를 관절 내부에 직접 결합할 수 있는 Frameless Torque Motor 계열의 BLDC 모터가 주로 활용된다. 높은 토크밀도와 경량화, 제한된 공간에서의 열관리, 정밀제어 성능이 핵심 경쟁요소다. Kollmorgen, Maxon 등 기존 정밀 모터 업체가 로봇용 Frameless Motor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chaeffler와 같은 대형 산업부품 업체도 모터·감속기·센서·제어기를 통합한 일체형 액추에이터를 앞세워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시장 초기인 만큼 휴머노이드용 모터·액추에이터의 확정적인 업체별 점유율은 형성되지 않았다. 기존 정밀 모터 업체뿐 아니라 자동차·산업자동화 업체와 중국 로봇부품 업체의 진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로봇 OEM은 액추에이터를 자체 설계하고 있다. Maxon(스위스), Kollmorgen(미국), Nidec(일본) 등 기존 모터업체와 Inovance, Leadshine, CubeMars 등 중국 업체가 주요 경쟁군으로, 향후 경쟁의 중심은 개별 모터 성능에서 액추에이터 단위의 최적화와 고객 맞춤 설계, 가격 및 대량생산 능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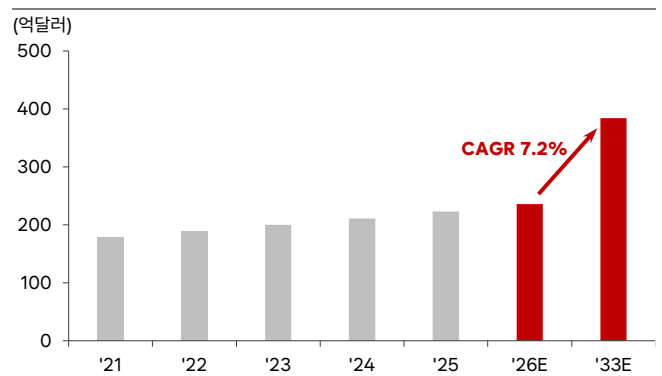
특히 휴머노이드 OEM들이 양산을 앞두고 모터·감속기 등 핵심 부품사를 접촉·평가하면서 공급망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Boston Dynamics의 Atlas를 비롯한 주요 OEM의 양산 공급사 선정 결과가 향후 시장 경쟁구도와 업체별 점유율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판단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 비중- 액추에이터 비중은 55% 추정



자료: 언론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BLDC 모터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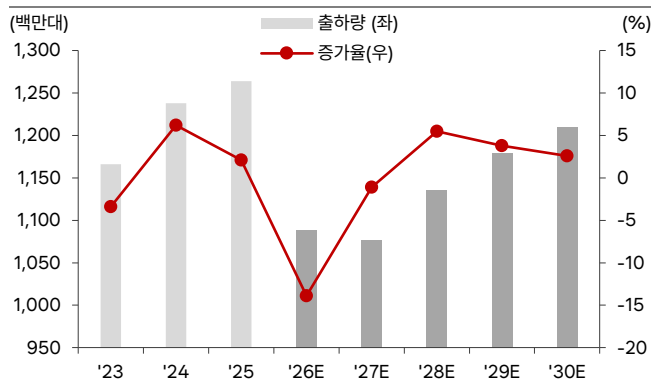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속 고사양 안테나 믹스가 방어 요인

스마트폰 시장 위축 속 프리미엄 제품 차별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한 가운데 2026년에는 부품 가격 상승과 수요 둔화로 출하량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IDC는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을 전년 대비 16.7% 감소한 약 10.9억대로 전망하는 반면, ASP는 27.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12.6% 증가할 전망으로 프리미엄 제품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 스마트폰 안테나는 NFC, 무선충전, Bluetooth·GPS 등 기능이 확대되고 기기 내부 공간이 제한될수록 소형화와 복합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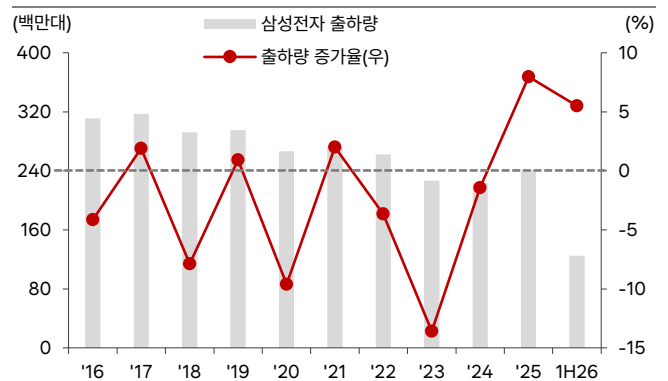
한편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2026년 상반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모텍은 NFC·WPC·MST를 결합한 Combo Antenna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고부가 제품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는 안테나의 복합화 및 제품당 부가가치 상승 측면에서 기회요인이다. 다만 고객사 내 제품 채택 여부와 공급점유율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안테나 사업은 구조적 성장동력보다는 기존 매출을 방어하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망



자료: ID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량 추이



자료: ID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물꼬 트인 AI 데이터센터향 MLCC

AI향 MLCC, 고객 확대 본격화
및 마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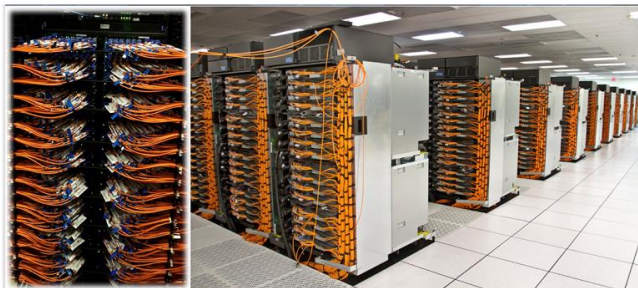
AI 데이터센터가 MLCC 사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사는 2026년 2월 Marvell향 AI용 MLCC 승인을 완료했으며, Coherent(미국)향 공급도 시작했다. 현재 대만·미국 등 글로벌 업체 약 15개사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 고객의 승인 및 양산 전환이 이어질 경우 AI향 매출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력 제품은 고속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노이즈를 제어하고 신호 무결성을 확보하는 BBC(Broadband Capacitor, 광대역 커패시터)다. 데이터 전송 속도와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광통신 모듈 내 신호 손실과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부품의 중요성이 커진다. BBC는 AI 데이터센터의 고속 광통신 확대와 함께 수요가 증가하는 초기 시장으로, 글로벌 부품 업체 간 고객 선점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아모텍은 후발주자이나 Marvell 글로벌 고객의 승인·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고객 확보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했으며, 향후 생산능력 확대와 신규 고객의 양산 전환 여부가 핵심 변수다.

적용처와 제품군도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향후 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AOC(Active Optical Cable, 능동형 광케이블) 등 고속 광통신 응용처를 중심으로 BBC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AOC는 광섬유와 양단의 광전변환 모듈을 결합한 고속 통신 케이블로, BBC는 해당 모듈 내 고속 신호 처리에 적용된다. 또한 Power단에 적용되는 AI용 COG MLCC 개발을 완료했으며, 향후 고객사 승인 및 양산 전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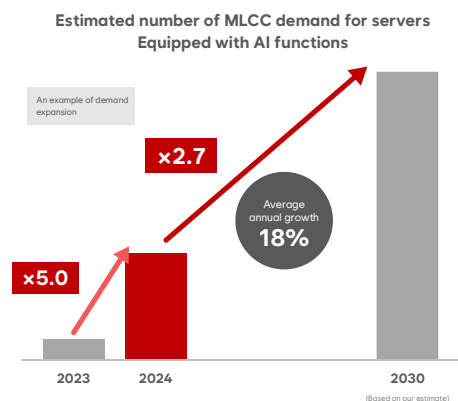
실적 측면에서는 AI용 MLCC의 높은 부가가치에 주목한다. AI 서버는 제한된 PCB 면적에서 높은 전력을 처리해야 해 MLCC의 소형·고용량화가 요구되며, 차세대 GPU로 갈수록 고용량·고사양 제품 비중 상승에 따른 ASP 및 제품 믹스 개선이 예상된다. 2026년은 초기 매출 단계이나, 2027년부터 고객 수와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BBC에서 COG 및 초소형·고용량 제품으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될 경우 MLCC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AOC(능동형 광케이블)



자료: NVIDI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서버 확대에 따른 MLCC 수요 증가



자료: Murat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길었던 MLCC 부진 종료, 수율 정상화 이후 전장 중심 성장 재개

수율 정상화로 MLCC 이익 성장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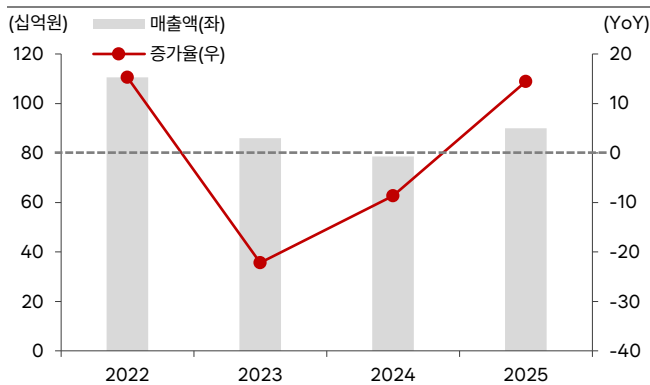
MLCC 사업은 2018년 진입 이후 예상보다 높은 양산 난이도로 장기간 실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초기 통신용 제품에서 시작해 2022년 BYD EV BMS용 고용량 MLCC를 대규모 공급했으나, 이후 품질과 수율 문제가 발생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관련 문제는 약 1년 반에 걸친 대응 끝에 2024년 6월 마무리됐으며, 2025년부터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본격적인 영업 확대가 가능해졌다.

수율 정상화 이후에는 기존 BMS를 넘어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BYD ADAS Module용 고용량 MLCC 공급을 시작해 2026년에도 공급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에는 EV Charging Station용 High Voltage C0G MLCC의 추가 모델 승인을 확보했다. 회사는 해당 제품의 물량이 2027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객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MLCC가 더 이상 신규 투자와 낮은 수율로 이익을 훼손하는 사업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규모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산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장과 AI 양쪽에서 신규 제품과 고객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MLCC 매출은 2025년 약 250억원에서 2026년 4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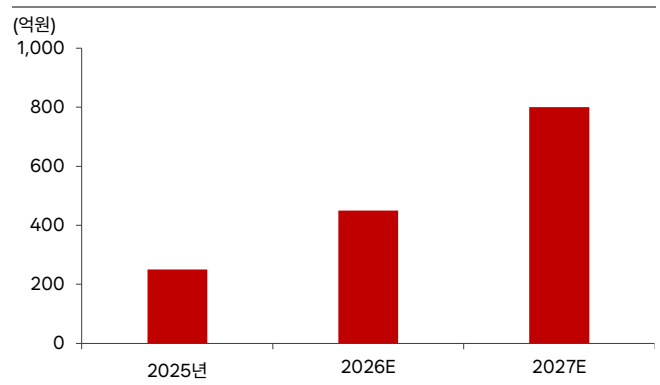
향후에는 매출 성장 자체보다 수율 안정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동률 상승이 실제 이익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장기간 이어졌던 품질 비용과 낮은 가동률 부담이 완화되고 전장·AI용 물량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MLCC는 과거 전사 수익성을 훼손하던 사업에서 향후 이익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중국 지역 매출액 추이



자료: 아모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장+AI 합산 MLCC 매출액 목표



자료: 아모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BLDC에서 로봇 액추에이터로, 2027년 신규 성장동력 기대

전장 넘어 로봇 액추에이터로 확장

모터사업은 기존 자동차용 BLDC Motor에서 Actuator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의 모터 매출은 2025년 848억원에서 2026년 약 900억원이 예상되며,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자동차 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Headlamp·ADAS Cooling Fan 등 기존 Fan Motor를 기반으로 Monitor Moving, Seat, Air Vent, Aerodynamic Control 등 다양한 전장용 Actuator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다음 확장 시장은 로봇이다. 로봇에서는 모터 자체 성능뿐 아니라 정밀한 제어와 감속 기술이 중요하다. 자동차용과 로봇용 Actuator의 요구 성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장 시장에서 축적한 BLDC 설계·제어 기술과 장기간의 양산 신뢰성은 로봇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회사는 빠르면 2027년부터 로봇 사업화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요 완성차 OEM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Tesla는 Optimus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 역시 Boston Dynamics를 중심으로 로보틱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모텍은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기존 전장 부품 거래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Tesla에도 ESS용 Cooling Fan을 공급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ESS 사업에서 확보한 고객 접점과 양산 레퍼런스는 향후 로봇용 Actuator 신규 프로젝트 확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룹 내 로봇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모그룹 관계사 아모그린텍은 Tesla 휴머노이드 로봇용 자성소재 공급 이력이 보도됐으며, 아모에코시스템즈는 2026년 아모에코로보시스템즈로 사명을 변경하며 로봇·자동차 사업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모텍이 Actuator, 관계사가 소재 및 자동화 영역을 담당하는 형태로 그룹 내 로봇 밸류 체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련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실제 고객사 확보와 양산 프로젝트 구체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로봇 사업은 현 시점에서 실적에 선반영하기보다 중장기 Upside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2027년 사업화 계획이 구체화되고 실제 고객사 프로젝트와 양산 일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전장 중심 모터사업의 적용 시장이 로봇으로 확대되면서 성장률과 밸류에이션 모두에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모그린텍, 테슬라 휴머노이드용 자성소재 공급 보도

아모그린텍, 테슬라 옵티머스 충전기용 자성소재 메인 벤더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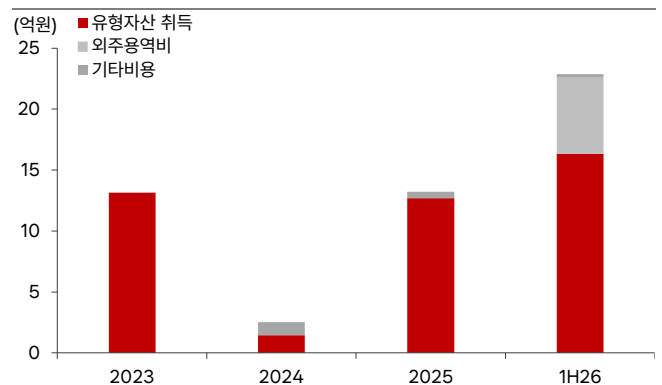
▲ 역승일 | © 입력 2026.04.23 10:07 | © 수정 2026.04.23 17:53 | ■ 댓글 0

f | 옵티머스 생산 본격화될수록 충전기 수요도 동반 증가 예상

X | 아모그린텍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충전기 내 전력변환장치용 자성소재 주 공급사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많이 본 뉴스
1 고희테크놀러 AI 메모리 '5C'

아모텍과 아모에코로보시스템즈 관련 거래액 추이



자료: 로봇신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아모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H26 실적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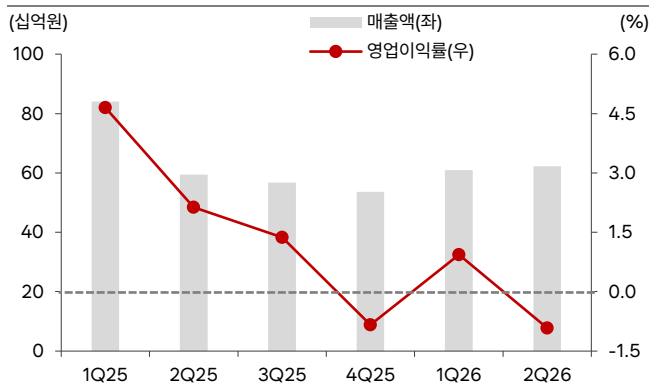
안테나 부진으로 외형 감소,
수익성은 BEP 수준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1,233억원(-14.1% YoY, 이하 YoY), 영업손실은 0.03억원(적자전환)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0.0%(-3.6%p)로 하락했다. 당기순손실은 19억원으로 전년 동기 95억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 1분기 매출액은 610억원(-27.4%), 영업이익은 6억원(-85.4%)으로 외형과 이익이 동반 감소했다. 2분기에는 매출액 623억원(+4.9% YoY), 영업손실 6억원을 기록하며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수익성 회복은 지연됐다.

상반기 외형 감소는 안테나 사업 부진의 영향이 가장 컸다. 안테나 매출은 458억원(-26.7% YoY)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매출 감소액 약 202억원 중 약 83%를 차지했다. 모터 매출은 406억원(-4.5%), EMC는 277억원(-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2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며 1분기 대비 외형 회복 흐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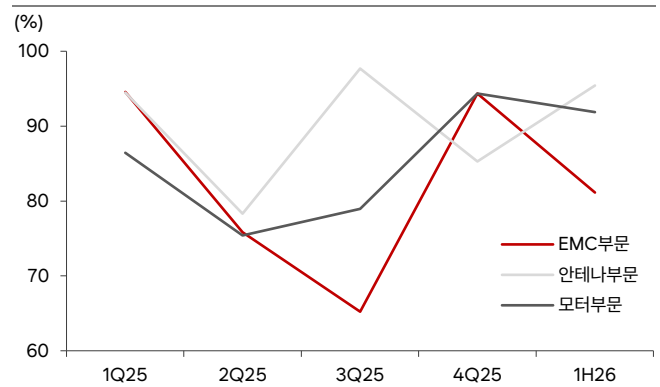
비용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기준으로 보면 2분기는 매출액 544억원(+5.3% YoY), 영업이익 2억원(-83.6%)을 기록했다. 매출총이익률이 15.0%(-1.2%p)로 하락한 가운데 판관비도 79억원(+13.2%)으로 증가하며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경량연구개발비와 수출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MLCC 신규 고객 대응과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선반영되었다고 판단한다. 별도 당기순손실은 13억원을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에는 투자주식처분이익 약 71억원이 반영돼 순이익의 단순비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AI·광통신용 MLCC 매출 확대가 가동률 상승과 원가율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분기별 실적 추이



자료: 아모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가동률 추이



자료: 아모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실적 전망

MLCC 정상화로 영업이익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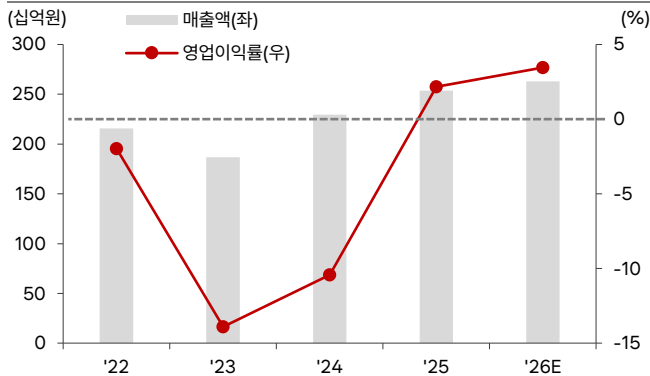
2026년 연결 매출액은 2,630억원(+3.6% YoY, 이하 YoY), 영업이익은 83억원(+51.5%), 영업이익률은 3.2%(+1.0%p)로 추정한다. EBITDA는 272억원(+20.6%)을 기록할 전망이다. 외형 성장은 제한적이나 MLCC 사업 정상화와 제품 믹스 개선으로 매출총이익률은 2025년 15.7%에서 2026년 16.8%로 상승할 전망이다.

2025년 영업흑자 전환에 이어 2026년은 신규 성장축이 구체화되는 시기로 판단한다. 상반기에는 안테나 부진과 신규 고객 대응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BEP 수준에 그쳤으나, 하반기 AI용 MLCC 매출 반영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Marvell과 Coherent향 공급이 시작된 가운데 고부가 MLCC 매출 확대가 가동률과 믹스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본격적인 성장 시점은 2027년으로 예상된다. AI 광통신용 MLCC는 고객사 확대 및 양산 물량 증가가 기대되며, 로봇 액추에이터 역시 고객 프로젝트 확보 여부에 따라 신규 매출 기여가 가능하다. 기존 전장용 MLCC 정상화에 신규 사업 매출이 더해질 경우 2027년부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26년은 실적 회복 자체보다 2023년 수출 문제를 극복한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인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55억원(-30.8%)으로 영업이익 증가에도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2025년 96억원을 기록했던 기타영업외손익이 2026년 31억원으로 감소하는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연도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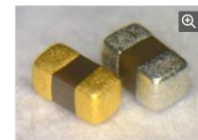


자료: 아모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아모텍, 3월 AI용 MLCC 양산 시작

아모텍, 美 마벨에 AI용 MLCC 초도물량 공급

발행일: 2026-03-03 17:00 | 자판: 2026-03-04 | 17면 | 전자신문을 선택하세요



아모텍 AI용 MLCC (사진 아모텍 제공)

아모텍이 인공지능(AI)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양산을 시작했다. 전장용에 이어 AI 시장으로 MLCC 사업을 확장하면서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텍은 미국 마벨(Marvell)에 대한 AI용 MLCC 초도물량 양산에 돌입했다.

MLCC는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조절하는 부품이다. 최신 AI 서버에는 2만8000개 가량 MLCC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전자신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아모텍 2026년 실적 추정

(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2,157	1,868	2,294	2,538	2,630
영업이익	-43	-260	-239	55	83
영업이익률	-2.0	-13.9	-10.4	2.2	3.2
당기순이익	-9	-15	-20	8	55
당기순이익률	-0.4	-0.8	-0.9	0.3	2.1
YoY					
매출액	8.6	-13.4	22.8	10.6	3.6
영업이익	적지	적지	적지	흑전	51.5
당기순이익	적지	적지	적지	흑전	-30.8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추정

Valuation
1 광통신용 MLCC 양산 확대와 수익성 회복이 리레이팅의 핵심
**광통신용 MLCC 양산 확대가
리레이팅 핵심**

아모텍은 현재 주가 21,800원 기준 시가총액 4,072억원으로, 2026F P/E 71.6배, P/B 2.2배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Murata(일본), TDK(일본), Taiyo Yuden(일본), Yageo(대만) 등 Peer의 2026F P/E는 평균 48.6배, 중간값 47.2배이며, P/B는 평균 5.9배, 중간값 5.5배다. 아모텍은 P/B 기준 Peer 대비 큰 폭의 할인 상태이나, P/E는 Peer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밸류에이션 차이는 수익성 격차에서 기인한다. 아모텍의 2026F ROE는 3.2%로 Peer 평균 13.2%를 크게 하회한다. 2026년 영업실적은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아직 이익 규모가 정상화되지 않아 높은 P/E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낮은 P/B만으로 저평가를 판단하기보다는 MLCC 가동률 상승과 고부가 제품 믹스 확대를 통한 ROE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리레이팅의 핵심은 MLCC 신규 응용처 확대다. 2026년 AI 광통신용 고객 진입이 확인됐으며, 2027년에는 추가 고객 확보와 양산 물량 확대가 기대된다. 기존 전장향에 광통신용 매출이 더해지면서 MLCC 가동률과 제품믹스가 개선될 경우 전사 수익성 회복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모터 사업에서 주요 OEM 고객을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광통신용 고객 확대 및 양산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MLCC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경우 현재의 높은 P/E 부담은 지속될 수 있다.

아모텍의 Global Peer Valuation

(십억원, 배)	종가 (원, 엔, 대만달러)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E		P/B		ROE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아모텍	21,800	407	254	263	6	8	19.5	71.6	1.0	2.2	5.2	3.2
삼성전기	1,604,000	119,809	11,314	14,389	913	2,014	28.0	78.8	2.0	10.9	7.7	15.3
삼화콘덴서	159,700	1,660	294	328	13	30	24.3	59.6	1.1	5.5	4.6	9.6
Murata Manufact(일본)	8,683	144,447	17,327	18,087	2,671	3,866	26.7	43.8	2.3	5.5	8.8	13.3
TDK(일본)	3,530	58,151	23,705	24,890	2,559	2,944	19.1	25.7	1.7	2.8	9.8	11.5
Taiyo Yuden(일본)	11,460	13,360	3,363	3,481	151	365	34.6	50.5	1.3	4.0	4.5	8.3
Yageo(대만)	647	56,117	6,067	7,659	1,365	2,085	20.1	33.3	2.8	6.6	14.3	21.2

주: 주가는 10월 7일 기준. 아모텍을 제외한 기업들은 시장 컨센서스 참고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AI향 고객사 확보 지연 가능성
**MLCC 가동률·수익성 개선 지연
우려**

MLCC 사업의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광통신 시장에서 신규 고객 확보와 양산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 동사는 전장 중심의 MLCC 고객군을 AI 광통신 등 고부가 응용처로 확대하고 있으나, 신규 고객사의 품질 인증과 양산 전환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고객사 확보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MLCC 가동률 상승과 제품 믹스 개선 속도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AI향 제품은 기존 전장용 대비 성장 기대가 높은 영역인 만큼, 실제 양산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MLCC 사업의 외형 성장뿐 아니라 고정비 부담 완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폭도 제한될 수 있다. 향후 신규 고객 인증 완료와 초도 공급 이후 반복 수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2,157	1,868	2,294	2,538	2,630
증가율(%)	8.6	-13.4	22.8	10.6	3.6
매출원가	1,871	1,803	2,206	2,139	2,188
매출원가율(%)	86.7	96.5	96.2	84.3	83.2
매출총이익	286	65	88	399	442
매출이익률(%)	13.3	3.5	3.8	15.7	16.8
판매관리비	329	325	327	344	359
판매관비율(%)	15.3	17.4	14.3	13.6	13.7
EBITDA	185	-37	-43	226	272
EBITDA 이익률(%)	8.6	-2.0	-1.9	8.9	10.4
증가율(%)	2,629.4	적전	적지	흑전	20.6
영업이익	-43	-260	-239	55	83
영업이익률(%)	-2.0	-13.9	-10.4	2.2	3.2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51.5
영업외손익	-62	159	5	54	-11
금융수익	130	96	90	61	55
금융비용	148	127	110	103	98
기타영업외손익	-45	190	25	96	31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05	-100	-234	109	72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33.5
법인세비용	-13	47	-36	30	18
계속사업이익	-92	-147	-198	79	55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92	-147	-198	79	55
당기순이익률(%)	-4.3	-7.9	-8.6	3.1	2.1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30.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92	-147	-198	79	55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4	33	66	166	56
당기순이익	-92	-147	-198	79	55
유형자산 상각비	178	180	161	144	156
무형자산 상각비	49	43	34	27	33
외환손익	41	16	13	8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30	6	-164	22	-144
기타	88	-65	220	-114	-44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2	-17	-3	-117	-162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3	98	66	-0	-13
유형자산의 감소	222	21	11	36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66	-254	-64	-136	-170
기타	-7	118	-16	-17	2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59	-163	-77	11	326
차입금의 증가(감소)	-251	-125	-86	16	119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206
배당금	0	0	0	0	0
기타	-8	-38	9	-5	1
기타현금흐름	-29	23	-5	-1	23
현금의증가(감소)	-202	-124	-19	59	243
기초현금	613	411	287	268	328
기말현금	411	287	268	328	570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1,860	1,776	1,608	1,530	1,943
현금성자산	411	287	268	328	570
단기투자자산	38	45	27	48	48
매출채권	424	420	444	411	470
재고자산	812	911	755	688	797
기타유동자산	174	113	114	56	58
비유동자산	1,980	1,984	1,950	2,002	1,996
유형자산	1,359	1,365	1,254	1,130	1,144
무형자산	165	170	170	209	175
투자자산	275	307	338	376	389
기타비유동자산	181	142	188	287	288
자산총계	3,840	3,760	3,558	3,533	3,939
유동부채	1,624	1,869	1,684	1,579	1,653
단기차입금	385	503	491	581	636
매입채무	290	477	501	387	401
기타유동부채	949	889	692	611	616
비유동부채	448	242	382	392	463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272	70	195	121	185
기타비유동부채	176	172	187	271	278
부채총계	2,072	2,110	2,066	1,971	2,116
지배주주지분	1,768	1,650	1,492	1,562	1,823
자본금	49	73	73	73	85
자본잉여금	314	289	289	289	484
자본조정 등	-0	-1	-1	-1	-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22	189	237	231	231
이익잉여금	1,183	1,099	893	969	1,024
자본총계	1,768	1,650	1,492	1,562	1,823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N/A	N/A	N/A	19.5	71.6
P/B(배)	1.4	0.8	0.4	1.0	2.2
P/S(배)	1.2	0.7	0.3	0.6	1.5
EV/EBITDA(배)	18.0	N/A	N/A	10.2	17.7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522	-832	-1,122	449	305
BPS(원)	10,020	9,351	8,458	8,854	9,758
SPS(원)	12,228	10,590	13,007	14,385	14,602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5.1	-8.6	-12.6	5.2	3.2
ROA	-2.3	-3.9	-5.4	2.2	1.5
ROIC	-2.0	-14.3	-11.5	2.8	3.1
안정성(%)					
유동비율	114.5	95.0	95.5	96.9	117.5
부채비율	117.2	127.9	138.4	126.2	116.1
순차입금비율	54.3	55.8	57.4	56.0	41.2
이자보상배율	-0.7	-4.0	-3.5	0.9	1.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5	0.6	0.7	0.7
매출채권회전율	5.3	4.4	5.3	5.9	6.0
재고자산회전율	2.7	2.2	2.8	3.5	3.5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아모텍	○	X	X

2026년 10월 7일 기준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10.12	아모텍-AI 고도화가 이끄는 MLCC 시대
2022.09.06	아모텍-차량의 전장화, 고전압, 고온 환경 변화 수혜주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